광주경총, 김세용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 금요조찬포럼

“인구 감소·고령화 대응…도시공간 재편 서둘러야”

김세용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가 지난 5일 광주경영자총협회 주관 제1723회 금요조찬포럼에서 ‘20세기 도시를 넘어서, 인구 변화에 따른 도시 재구조화 방향’이란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1~2인 가구 확대 지속…주거지 생활 트렌드 변화
공공주택 공급 확대…“차고지 등 유휴부지 활용을”

“인구 감소와 초고령사회 진입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시 공간 재편과 새로운 교통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김세용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지난 5일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광주경영자총협회 제1723회 금요조찬포럼에서 ‘20세기 도시를 넘어서, 인구 변화에 따른 도시 재구조화 방향’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1970년대부터 2010년까지 변화한 서울의 위성사진을 소개하며 신도시 개발 역사와 도시 성장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1970년대만 해도 서울은 강북 중심 도시였지만 1968년 김신조 무장공비의 청와대 습격 사건 이후 강남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도시 구조가 크게 변화했다”며 “신도시 개발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 복구사업의 하나로 미국과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 추진됐고, 우리나라도 1990년대부터 본격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신도시는 ‘가장이 고생하면 나머지 가족이 행복하다’는 인식 속에서 형성됐다”며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 가장들이 하루 2~3시간의 통근을 감내했고, 이러한 구조가 수도권 집중과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저출산과 고령화,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주거 트렌드 변화도 짚었다.

그는 “최근에는 장시간 출퇴근이나 교외의 넓은 주택보다 다소 좁더라도 직장과 가까운 주거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기능을 동네 안에서 해결하는 ‘올인빌(All in Ville)’과 집 안에서 해결하는 ‘올인홈(All in Home)’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쇼핑과 문화·여가 활동을 집에서 해결하는 사례가 늘면서 공유 킥보드와 자전거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경리단길과 연남동, 성수동 등 골목상권이 대로변 상권보다 경쟁력을 보이는 현상 역시 이러한 변화와 맞닿아 있다”고 덧붙였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2021년 전국 주택보급률이 102.2%를 기록해 주택 부족 문제는 일정 부분 해소됐지만 높은 집값은 여전히 해결 과제”라며 “청년층이 부담 가능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 국토정책 조사 결과 미혼 남녀 10명 중 3명이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로 주택 마련 부담을 꼽았다”며 “도로와 차고지, 물재생센터 등 도시 내 저이용 토지를 활용한 공간 재창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미래 도시 모델로 10분 이내에 일상생활이 가능한 ‘콤팩트시티(Compact City)’를 제시했다.

그는 “콤팩트시티는 주거와 일자리, 교통, 문화·여가시설 등을 집약해 이동 시간을 최소화하고 생활 편의성을 극대화한 도시 형태”라며 “서울 장지·강일·연희 콤팩트시티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소개했다.

이어 “이들 지역은 주민 요구를 반영해 공원 중심의 생활밀착형 편의시설과 문화공간, 주거시설을 함께 조성했다”며 “주민센터와 소방서, 파출소, 버스공영차고지 등 유휴 공공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한다면 청년층 유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경영자총협회 금요조찬포럼은 오는 12일 같은 장소에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을 초청해 ‘새로운 기업 파트너십, 투자자 전남광주’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글·사진=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삼겹살 음식점 ‘형님 저요’에서 이른바 ‘삼소(삼겹살·소주) 회동’을 가졌다. 공동취재

젠슨 황, 한국과 피지컬 AI 동맹 구축 ‘속도’

로봇·자율주행·AI팩토리 등 협력해 AI 시장 주도 포석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7개월 만에 다시 한국을 방문, 인공지능(AI) 산업의 도약을 가져올 피지컬 AI 생태계 확장을 위해 한국 기업들과 전략적 동맹 구축에 나섰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황 CEO는 지난 5일 방한 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음식점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과 함께 ‘삼소(삼겹살과 소주) 회동’을 가졌다.

이번 회동 이후 엔비디아와 국내 기업들의 협력 계획도 속속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LG 그룹과는 로봇과 스마트홈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AI 탑재 가사 로봇과 스마트 가전, 산업용 로봇 분야에서 엔비디아의 AI 플랫폼과 LG의 하드웨어 역량을 결합한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이 양사의 비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대차는 자율주행차와 로보틱스 방면에서 협력을 더욱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와는 국가별로 데이터와 인프라를 확보하는 소버린 AI 경쟁에서의 협력 모색이 점쳐진다.

황 CEO는 업스테이지 등 국내 로봇·AI 스타트업과의 비공개 간담회도 열고 AI 인프라 협력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 등 게임업계 창업자들과도 만나 게임 및 AI 사업 협력 기회를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박2일 방한에 비해 3박4일로 길어진 이번 황 회장의 ‘광폭행보’는 한국을 피지컬 AI의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엔비디아의 전략과 맞닿아 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경쟁력을 갖춘 국가로, 소프트웨어와 제조업, 인프라까지 모두 갖춘 세계에 몇 안 되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는 물론, 현대차와 LG그룹의 스마트 팩토리, 네이버의 초거대 AI 모델까지 모두가 엔비디아의 피지컬 AI 실현을 위한 필수 공급망이자 최적의 테스트베드라는 평가가 나온다.

연합뉴스

KT ‘통합요금제 출시’ 데이터 안심 옵션 전면 적용

7월1일 신규 가입자…초이스·베이직 18종 간소화

KT가 5G와 LTE로 나뉘어 있던 요금체계를 하나로 합친다.

KT는 7월 1일 스마트폰 단말 종류나 네트워크 방식과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는 신규 ‘통합요금제’를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라 기존 5G·LTE 요금제 105종은 7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된다. 기존 가입자는 현재 이용 중인 요금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그동안 5G와 LTE 요금제가 따로 운영되면서 소비자는 단말과 네트워크 방식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지는 불편을 겪었다.

새 요금제는 완전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초이스’와 데이터 제공량별로 선택하는 ‘베이직’ 등 18종으로 간소화됐다.

KT는 모든 구간에 데이터 안심 옵션을 적용해 기본 데이터를 모두 써도 추가 과금 없이 데이터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광주·전남·제주 스마트제조기술기업 지역협의회 출범

스마트제조기술기업 중심 지역 제조 AX 생태계 조성

광주·전남·제주지역 스마트제조기술기업들이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AX) 확산과 지역 제조생태계 혁신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과 광주테크노파크는 광주·전남·제주지역의 스마트제조기술기업으로 구성된 지역협의회가 최근 호남권 공동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협의회는 지난 2월 공식 출범한 전국 ‘스마트제조기술기업협의회’의 지역 단위 조직이다. 광주지역은 ㈜쌍용소프트웨어의 이용재 회장, 전남지역은 ㈜드림테크의 정연오 회장, 제주지역은 주식회사 인플라이의 김민교 회장이 각각 지역 협의회를 이끌고 있다.

서울·인천권, 경기권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이번 호남권 출범식은 지역 단위 제조 AX(인공지능 전환) 협력체계 구축을 공식화하고 각 협의회의 운영 방향과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광주·전남·전북·제주 지역 기술기업들과 각 지역의 스마트제조혁신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제조 AX 전문가 특강과 스마트공장 우수 구축 사례 공유, 기술교류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제조 AX 솔루션 및 시장 확산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은지 기자 eunzy@